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78-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보다 나은 직업 진로 탐색을 위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진로 일대기’

2024. 04. 17.

담당자 박종경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0988

e-mail | jkpark@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보다 나은 직업 진로 탐색을 위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진로 일대기’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결과

- 진로 고민은 남녀노소 무관이다. 그것은 때로는 꿈의 문제이며, 때로는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의 방향성도 다양해진다. 이 직업이 나은가? 여러 개보다는 한 우물을 파야 하나? 진로는 언제부터 고민해야 하지? 진로 선택을 잘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2월 2일 ~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릴 적 장래희망부터 진로 탐색 시기의 목표직업, 그리고 실제 주된 직업까지 3개의 주요 진로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진로 일대기’를 살펴보았다.
- 장래희망 개수는 평균 2.4개, 목표직업은 1.6개, 실제직업은 1.9개로 나타나, 주요 진로 형성 시기별로 사람들은 1~3개 정도의 직업을 탐색하거나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장래희망 형성 시기는 ‘초등학교 때’(51%), 본격적인 직업 진로 탐색은 ‘20대 초반’(40%)이 주된 시작 시점으로 나타나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 및 직무를 알게 된 시기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
- 장래희망 직업은 ‘교육자’(24%), ‘의사 및 간호사’(11%), ‘과학자 및 연구원’(10%) 등으로 주로 전문직군 높은 비율을 기록한 데 반해, 목표직업 및 실제직업에서는 ‘일반 근로자’(25%, 40%)가 1위로 나타나고, 장래희망과 실제직업의 직군/계열이 일치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다.
- 진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도 각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장래희망에서 실제직업으로 갈수록 ‘본인의 취미 및 흥미’의 영향(29%→24%→16%)은 감소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의 영향(18%→22%→26%)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본인 성향 파악’이 36%, 효과적인 국가지원으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기에 직업체험 기회 확대’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실제직업을 선택할 때,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직업 및 직무 적합도’(+8%p)를, 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직업으로 인한 소득’(+12%p)을 더 많이 고려한다. 그러나 ‘실제직업 만족도’(+11%p)와 ‘진로 탐색 원활 정도’(+25%p)는 학교 전공 관련성 있는 사람이 더 높다.

1

직업 진로 평균 개수 및 형성 시기

장래희망, 목표직업, 실제직업의 각 평균 개수는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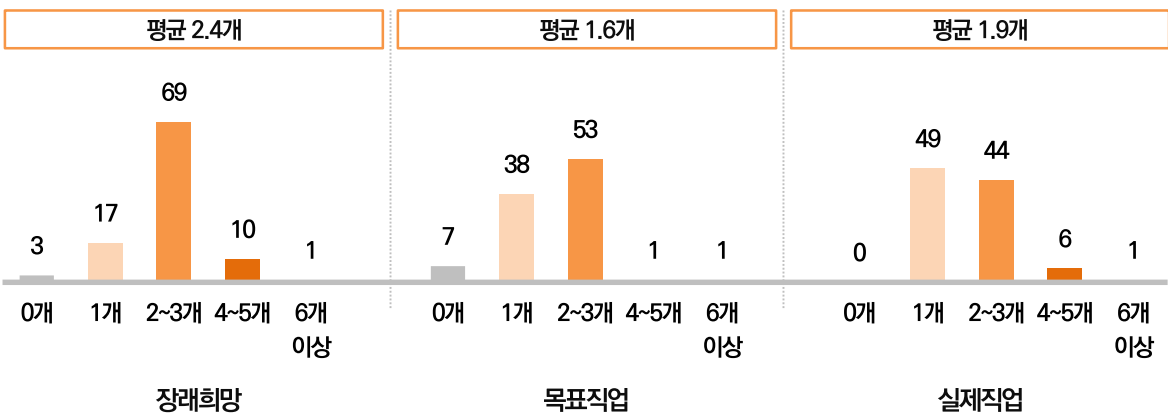
장래희망 형성은 '초등학교 때', 직업 진로 탐색은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시작

그러나 본인 직업 및 직무 적합도를 알게 된 시기는 '40대 이상'까지 계속 이어져

어릴 적 장래희망의 개수는 '2~3개'였다는 사람이 69%로 가장 많고, 평균은 2.4개이다. 직업 진로 탐색 시기의 목표직업 개수 역시 '2~3개'라는 사람이 53%로 가장 많고, 평균은 1.6개이다. 반면,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해 온 실제직업의 개수는 '1개'라는 사람이 49%로 가장 많고, 평균은 1.9개로 나타났다. 장래희망과 직업 진로 탐색, 실제 가진 직업 모두 1~3개 사이에 전체 응답의 8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장래희망과 목표직업은 '2~3개', 실제직업은 '1개'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단위 : %)



질문: (1. 장래희망) 어린 시절에 가졌던 장래희망은 몇 개쯤 되었나요?
 (2. 목표직업) 직업적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갖고 싶었던 직업은 몇 개쯤 되었나요?
 (3. 실제직업) 이제까지 1년 이상 꾸준히 해오던 직업은 모두 몇 개쯤 되었나요?

응답자 수: (1) 1,000명, (2) 진로 탐색 유경험자 974명, (3) 1년 이상 직업 유경험자 8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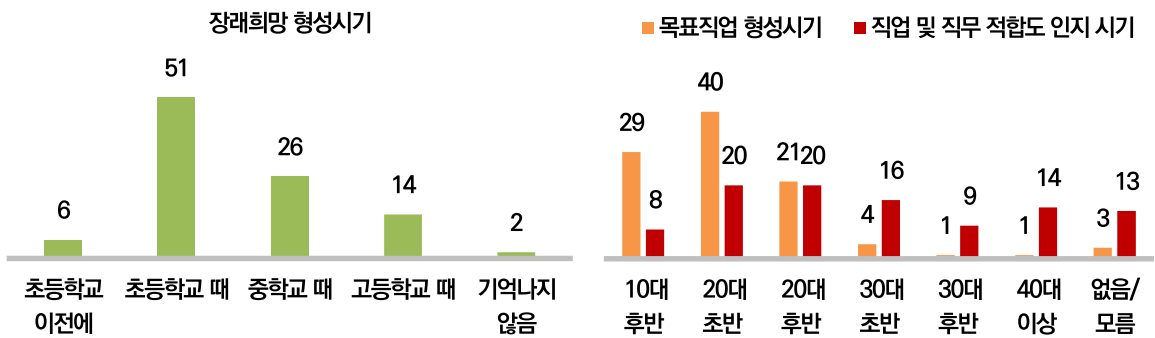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장래희망이 형성된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51%이고, ‘중학교 때’ 26%, ‘고등학교 때’ 14%가 뒤를 이었다. 직업 진로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시기는 ‘20대 초반’ 40%, ‘10대 후반’ 29%, ‘20대 후반’ 2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에게 어떤 직업이나 직무가 잘 맞는지 알게 된 시기는 10대 후반부터 40대 이상까지 최소 8% ~ 최대 20%를 기록하였다. 주로 10~20대 시기에 꿈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나, 직업 및 직무 적합도를 인지하는 시기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래희망 형성은 주로 ‘초등학교~중학교 때’,
본격적인 직업 진로 탐색은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시작
그러나 본인 직업 및 직무 적합도를 알게 되는 시기는 ‘30대 초반’부터 ‘40대 이상’까지도 계속 이어져**

(단위 : %)



질문: (1. 장래희망 형성시기) 가장 되고 싶었던 장래희망이 생긴 때는 언제인가요?

(2. 목표직업 형성시기) 그렇다면, 본인의 직업적 진로를 본격적으로 탐색 또는 고민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3. 직업 및 직무 적합도 인지시기)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귀하는 언제쯤 본인에게 어떤 직업이나 직무가 잘 맞는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수: (1) 장래희망 1개 이상인 973명, (2) 1,000명 (3)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시기별 직업 변화 양상 및 일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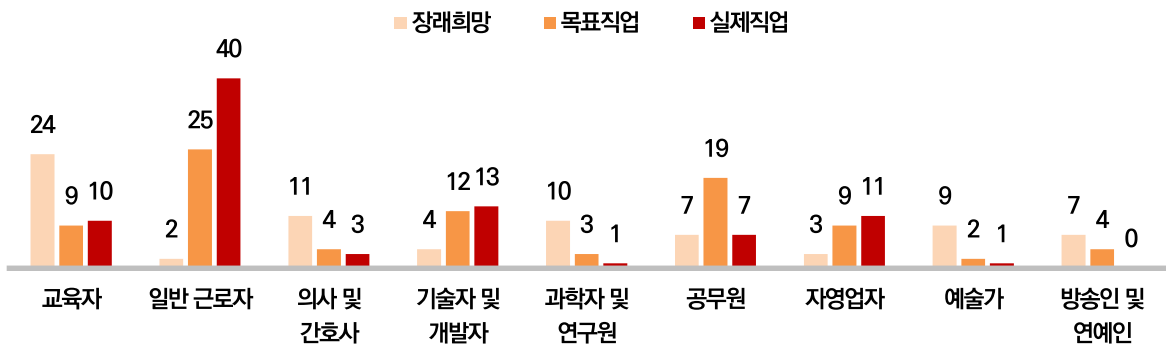
장래희망 1위 '교육자', 목표직업 및 실제직업 1위는 '일반 근로자' 장래희망과 실제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장래희망과 목표직업, 그리고 실제 직업별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장래희망은 '교육자' 24%, '의사 및 간호사' 11%, '과학자 및 연구원' 10%, '예술가' 9%, '방송인 및 연예인' 7% 순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직업 진로를 탐색하는 시점에서의 목표직업은 '일반 근로자' 25%, '공무원' 19%, '기술자 및 개발자' 12%, '교육자'와 '자영업자' 9%가 상위 5순위를 차지했다. 실제직업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비중이 더욱 커져 40%로 나타났고, '기술자 및 개발자' 13%, '자영업자' 11%, '교육자' 10%, '공무원' 7%가 뒤를 이었다.

장래희망 1~3위를 차지했던 직업들은 실제 직업에서는 후순위(교육자 10% 4위, 의사 및 간호사 3% 6위, 과학자 및 연구원 1% 11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장래희망 7%(6위)였던 '공무원'은, 목표직업에서 19%(2위)로 크게 높아졌다가 실제직업에서 7%(5위)로 다시 낮아져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풍토를 실감케 했다. '자영업자'는 장래희망 3%(10위) → 목표직업 9%(4위) → 실제직업 11%(3위)로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자 및 개발자'(장래희망 4% 8위 → 목표직업 12% 3위 → 실제직업 13% 2위)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단위: %)

장래희망은 주로 전문직군이 높지만, 실제직업으로 갈수록 일반근로 비율 높아져



질문: (1. 장래희망) 그중에 가장 되고 싶었던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2. 목표직업) 직업적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가장 갖고 싶었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3. 실제직업) 1년 이상 꾸준히 해오던 직업 중, 가장 주된(또는 오래한) 직업 1개만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비고: 문항별 각 상위 5순위만 제시, 장래희망/목표직업/실제직업을 주관식으로 받아 분류

응답자 수: (1) 장래희망명 응답자 960명, (2) 목표직업명 응답자 899명 (3) 실제직업명 응답자 8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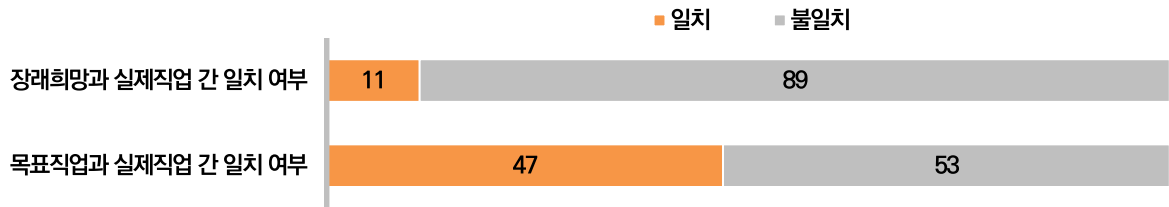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본인이 희망하거나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구체적인 직업이 아니라 직업 계열 또는 직업군 일치 여부로 폭넓게 고려할 때 장래희망과 실제직업이 일치하는 사람은 11%이며, 목표직업과 실제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어릴 적 장래희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길을 가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진로탐색 시기에 가진 목표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길을 가는 사람은 2명 중 1명 꼴이다.

(단위 : %)

장래희망과 실제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목표직업과 실제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2명 중 1명



질문: (1. 장래희망) 그중에 가장 되고 싶었던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2. 목표직업) 직업적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가장 갖고 싶었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3. 실제직업) 1년 이상 꾸준히 해오던 직업 중, 가장 주된(또는 오래한) 직업 1개만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비고: 장래희망/목표직업/실제직업에 관한 주관식 응답을 동일한 직업군끼리 분류한 후, 직업군 간 일치 여부 확인.
 직업군은 관리자, 공무원, 과학자 및 연구원, 교육자, 군인, 기술자 및 개발자, 대통령 및 정치인, 디자이너, 방송인 및 연예인, 법조인,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예술가, 요리사, 운동선수, 운전기사, 은행원 및 보험원, 의사 및 간호사, 일반 근로자, 기타로 분류

응답자 수: (1) 장래희망명 응답자 960명, (2) 목표직업명 응답자 899명 (3) 실제직업명 응답자 844명.
 응답 분류 후 '장래희망과 실제직업 간 일치 여부 그래프'는 782명, '목표직업과 실제직업 간 일치 여부' 그래프는 761명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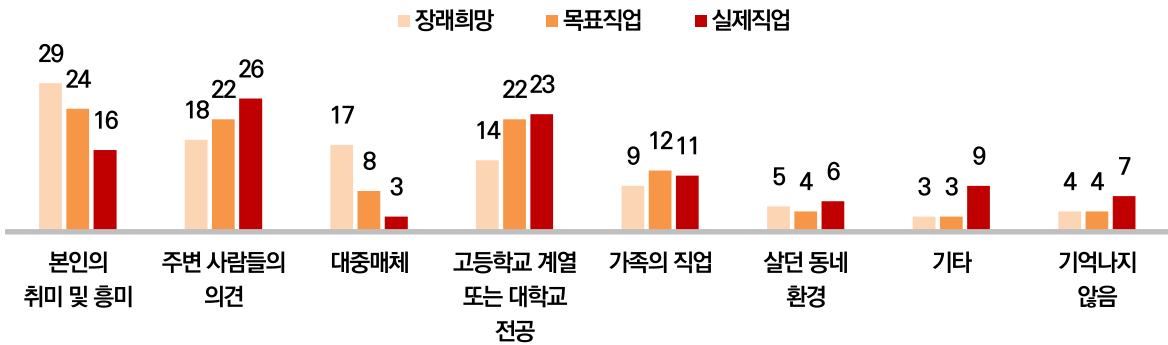
3 시기별 직업 진로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

**장래희망과 목표직업 형성에는 ‘그 당시 취미 및 흥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그러나 실제직업 결정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1위로 나타나**

장래희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본인의 취미 및 흥미’ 29%, ‘주변 사람들의 의견’ 18%, ‘대중매체’ 17% 순이다. 목표직업 형성 요인 역시 1위가 ‘본인의 취미 및 흥미’ 24%, 2위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 22%로 장래희망과 순위가 동일했으나 3위는 ‘고등학교 계열 또는 대학교 전공’ 22%로 나타났다. 실제직업을 갖게 된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26%로 1위에, ‘고등학교 계열 또는 대학교 전공’은 23%로 2위에 자리했다. 반면 ‘본인의 취미 및 흥미’는 16%(3위)로 나타나면서,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본인의 취미 및 흥미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직업을 가질 때는 영향력이 작아지고 학업(전공)이나 주변 의견 영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장래희망에서 실제직업으로 갈수록 ‘본인의 취미 및 흥미’와 ‘대중매체’의 영향 비율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 및 ‘고등학교 계열 또는 대학교 전공’의 영향 비율 늘어나



질문: (1. 장래희망) 가장 되고 싶었던 장래희망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다음 중 무엇이었나요?
(2. 목표직업) 가장 갖고 싶었던 직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다음 중 무엇이었나요?
(3. 실제직업) 과거 또는 현재 직업을 갖게 된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다음 중 무엇이었나요?

비고: '고등학교 계열 및 대학교 전공'은 장래희망에서 '학교 또는 학원 수업'으로 제시

응답자 수: (1) 장래희망 1개 이상인 973명, (2) 진로 탐색 유경험&목표직업 1개 이상인 907명 (3) 1년 이상 직업 유경험자 854명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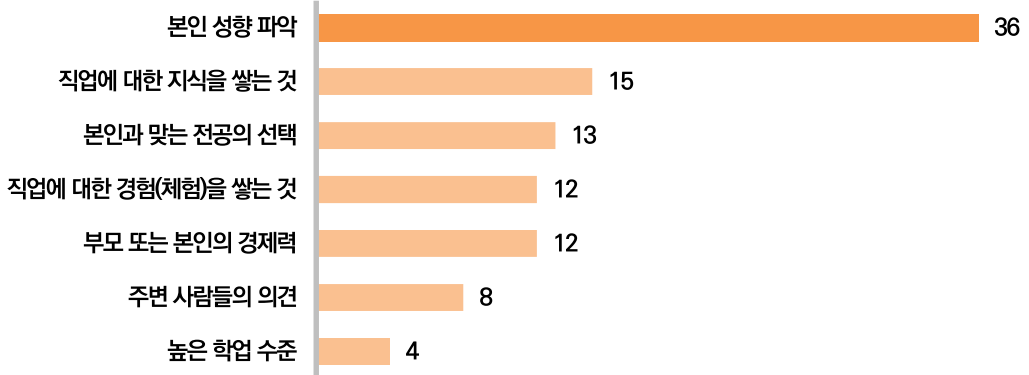
4 직업 진로 찾기에 영향 주는 요소 및 필요한 국가지원

‘본인 성향 파악’이 만족할 수 있는 직업 진로를 찾는데 가장 큰 영향 준다 효과적 국가지원에는 ‘고등 및 대학 시기 직업체험 기회 확대’ 꿈아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본인 성향 파악’이 36%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직업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15%, ‘본인과 맞는 전공의 선택’ 13% 순으로 자리했다. 그 외에 ‘직업에 대한 경험(체험)을 쌓는 것’과 ‘부모 또는 본인의 경제력’은 12%를 기록했다.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어떤 특징이나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과 맞는 전공 선택 및 직업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충분한 습득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본인 성향 파악’이 1순위, 다른 영향 요소 비해 2배 이상 높아

(단위: %)



질문: 직업적 진로 탐색을 할 때,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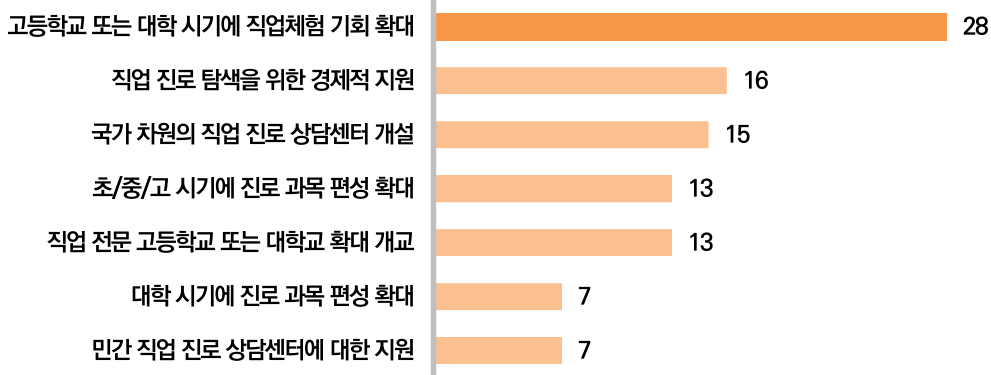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더욱 원활한 직업 진로 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지원으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기에 직업체험 기회 확대’가 2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직업 진로 탐색을 위한 경제적 지원’ 16%, ‘국가 차원의 직업 진로 상담센터 개설’ 15%로 나타나, 직업 진로 탐색에 있어 체험 및 상담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고, 진로 탐색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효과적 국가지원으로는 '진로교육', '진로상담' 보다 '직업체험'이 우선

(단위: %)



질문: 보다 원활한 직업적 진로 탐색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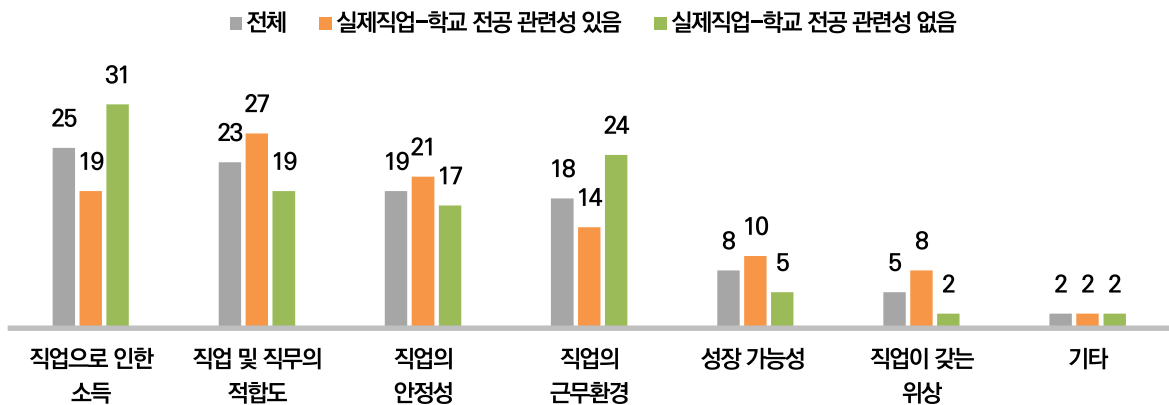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관련성 없는 집단은 ‘직업 및 직무 적합도’보다
‘소득’을 고려하여 실제직업 선택 해

학교 전공 관련성 있는 집단에서 실제직업 만족도 및 진로 탐색 원할 비율 높아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에 따라 직업 선택 요인과 직업 만족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31%가 실제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으로 인한 소득’을 고려했다고 답해, 관련성 있는 사람(19%) 대비 많았다. 반면 ‘직업 및 직무 적합도’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이 있는 사람(27%)이 관련성 없는 사람(19%)보다 많았다.

(단위: %)

실제직업-학교 전공 관련성 유무에 따라 ‘직업 소득’과 ‘직업 및 직무 적합도’ 등에서 차이 보여



질문: (1. 고려사항) 과거 또는 현재 직업을 선택하실 때, 고려하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었나요?

(2. 실제직업과 고등 전공 계열 관련성) 과거 또는 현재 직업은 본인의 고등학교 전공 계열(문과, 이과, 기타)과 얼마나 관련이 있었나요?

(3. 실제직업과 대학 전공 계열 관련성) 과거 또는 현재 직업은 본인의 대학교 전공(학부, 학과)과 얼마나 관련이 있었나요?

비고: 학교 전공 관련성 유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대학 재학 이상’은 대학교 전공에 따라 판별함

응답자 수: (1) 직업 유경험자(1년 이상) 854명,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 1년 이상 직업 경험 있는 사람 825명, (3) 대학교 재학 이상 & 1년 이상 직업 경험 있는 사람 4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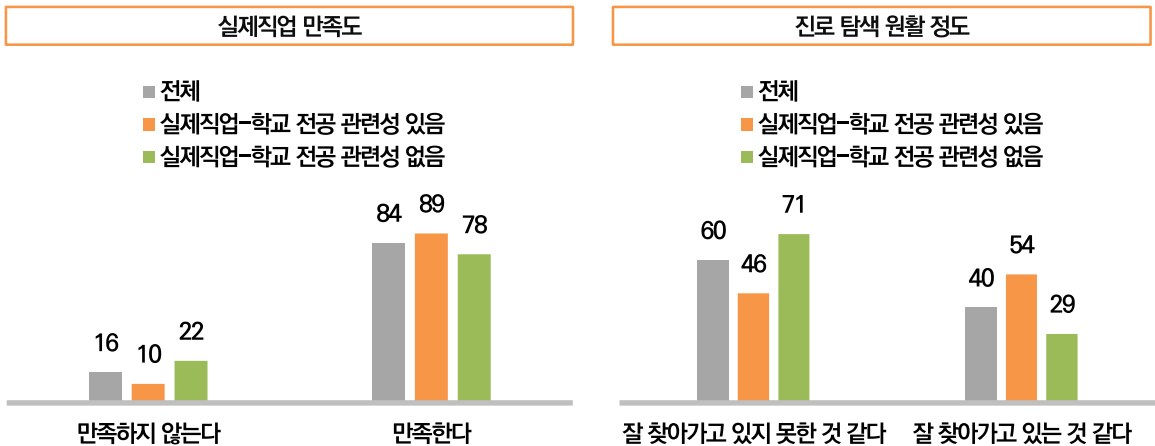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직업의 만족도는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이 있는 사람(89%)이 없는 사람(78%)보다 높고, 구직 의향자 중 '자신이 직업적 진로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이 있는 사람(54%)이 없는 사람(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이 낮은 경우, 주로 '근로 소득'에 중점을 두고 실제직업을 선택한다. 하지만 실제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진로 탐색의 원활성은 '직업 및 직무 적합도'를 고려하여 선택한, 실제직업과 학교 전공 간 관련성이 있는 집단이 더 높다.

(단위 : %)

실제직업-학교 전공 관련성 유무 간 실제직업 '만족한다' 차이 11%포인트 진로 탐색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차이 25%포인트



질문: (1. 실제직업 만족도) 과거 또는 현재 직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2. 진로 탐색 정도) 현재 본인의 직업적 진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교: (1) 만족하지 않는다(전혀+별로), 만족한다(조금+매우), 기억나지 않음 생략
(2) 잘 찾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전혀+별로),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조금+매우)

응답자 수: (1) 직업 유경험자(1년 이상) 854명, (2) 구직 의향자 379명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생애 주요 진로 형성 시점별로 1~3개의 직업을 탐색하거나 갖는다. 어릴 때는 취미 및 흥미에 따라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막상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전공과 주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진로를 잘 결정하려면 본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에게 어떤 직업이나 직무가 적합한지 알게 되는 시기는 40대 이상까지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직업 체험과 상담, 비용 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보다 나은 직업 진로 탐색을 위해서는 직업과 학업 전공 간의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으며, 당장의 근로 소득보다는 직업 및 직무 적합도를 좀 더 고려한다면 내가 선택한 직업에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키워볼 수 있다.

진로에 정도(正道)는 없으며 평생의 숙제이기에, 응답자들은 진로를 고민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1,000개의 조언들은 모두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1위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세요”(24%), 2위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체험)을 쌓으세요”(17%), 3위 “본인이 평소 즐기거나, 하고 싶은 일을 탐구하세요”(16%), 4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세요”(12%), 5위,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 탐색이 필요해요”(7%)

(단위: %)

진로를 고민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조언은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으로 귀결



질문: 진로를 고민하는 10대 또는 20대 청년들에게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고: 주관식 응답 분류, 상위 5순위만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 ~ 2. 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월 기준 전국 91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1,494명, 조사참여 1,53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2%, 참여대비 65.3%)
조사일시	• 2024년 2월 2일 ~ 2월 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